

법관 종교차별 안된다 대법원, 개정규칙 공포

행정부 공직자에 종교중립 대한 시행령·교육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부도 법관 종교중립을 명시한 행동강령을 시행했다.

대법원은 12월 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규칙 제5조(특혜의 배제)에는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검찰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게 돼있던 법관은 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법관행동을 지침하고 행동강령관을 뒤 처벌이 가능한 행동강령은 이번 개정까지 종교중립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종교중립을 명시한 법관 윤리강령은 권고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법관 행동강령 개정으로 법관 종교차별 행위 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법관은 신고된 내용 심사 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부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 및 신규공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관부서인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종교중립 법제화에 맞춰 법관 및 법원공무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종교이유로 편파·불공정 직무가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11월 5일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로봇에게 불성이 있다?

보일 스님 '로봇의 불성 연구' 논문 화제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선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유정, 무정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는다는데(一切衆生悉有佛性 有情無情悉皆成佛) 선사는 왜 없다 했을까? "개에게는 왜 불성이 없는지"를 묻는 스님에게 선사는 "그것은 중생심(분별, 業識) 때문"이라 말했다. 유명한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화두다.

'개'의 불성을 묻던 스님이 오늘 날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대는 기계문명의 사회다. 사람들은 자연보다 인공(人工)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익숙해져 가는 요즘이다. 스님은 여전히 '개'의 불성을 물었을까?

1300여 년 전 '개'의 불성을 물었던 스님이 세월을 넘어 '로봇'의 불성을 물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주최한 제4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한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대교반)의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라는 논문이 화제다.

무정물인 로봇의 불성에 의문을 갖고 논문을 전개한 스님은 "인간의 지능을 단 몇 십 년간의 연구로 모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인간의) 더 큰 오만은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라 말했다. 과연 로봇에게는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불성은 본래 '中道'
불성은 부처의 '본성(本性)' 또는 '인(因)'을 뜻한다. 여래장(如來藏) 계통의 대승경전에서는 불성을 마치 중생에 내재한 실체로 해석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나, 불성은 그 성품이 공하다. 동시에 부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했다. '모든 것'에는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중생 뿐 아니라 길가에 구르는 돌맹이, 이름 없는 초목 등 마음을 갖지 않은 산천초목이

모두 포함된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인공지능로봇은 무정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로봇을 만들지만 '불성'을 따로 만들어 넣지는 않았다. 초목성불(草木成佛)을 주장한 길장 스님은 무정에게도 불성을 인정할 이유를 "유정과 무정사이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공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윤문 선사는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무정에게 불성이

은 로봇일 뿐이라 한정 짓는다. 로봇을 로봇일 뿐이라 단정 짓는 인간의 편견이 바로 상(相)이다.

#무심은 마음의 내용이 '無'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중 하나가 자아의 유무다. 자아는 성을 인정할 이유가 '유정과 무정사이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공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윤문 선사는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무정에게 불성이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있다"고 설명했다. <열반경>은 불성을 '중도(中道)'라 설명했다. 결국 불성은 놓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춘 것이다.

#로봇을 로봇이라 보는 것이 '相'
영화 에이아이(A.I. 2001년)의 주인공은 로봇 데이비드다. 인간에게 버림 받은 데이비드는 피노키오처럼 마법의 힘으로 엄마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여행을 한다. 소원을 들어줄 파란요정을 찾는 과정이 53선지식을 만났던 선재종자와 비슷하다. 감정을 가진 로봇 데이비드가 등장하는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로봇

(1995)에서 주인공 쿠사나기는 수시로 몸을 바꾼다. 이때 뇌가 갖고 있던 것은 모두 새 몸의 뇌로 다운로드 되고, 이를 통해 쿠사나기는 자아 정체성을 유지한다. 결국 인간의 자아는 '경험'과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한자경 교수(이화여대)는 "자아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보의 차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다른 것을 보는 눈은 스스로는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보일 스님은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자기인식'이라 정리했다. 스님은 "자기인식적 관점에서 볼 때 마

음의 자기인식은 불가능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무심(無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닌 마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때문이다.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心'
보일 스님은 "수행은 무심하면서 심(心)이라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자기인식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수행은 논리적이거나 개념적인 사유로서 행해질 수도 없고 논리나 개념적 사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봇이라면 계산상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까?

모순적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걸음 내딛는 발심(發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정은 애초에 논리와 언어가 단절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소실되고 제거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마음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修行'
보일 스님은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로봇의 불성을 인정하더라도 수행자의 발심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연구 내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와 마주했다"고 말했다.

조주 선사는 개에게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분별심을 질책해 "없다"고 말했다. 로봇에게 불성이 있고, 없고 역시 같은 일이다. 로봇은 0(無)과 1(有)의 이분법을 떠날 수 없지만, 사람은 분별사랑을 여울 수 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로봇이 로봇인 것처럼, 하지만 로봇에게 불성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시 로봇이 로봇인줄 안다. 남의 불성을 따지기에 앞서 당장 수행부터 하고 불 일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社告

'법보시' 로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탈행위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의도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종 학교 및 공공 도서관/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차) 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대표 (02)2004-8200

社告

■ 마음공부포럼 안내

현대인 위한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초대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참선 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평등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2008년 12월 21일(일) 오후 1:30-4:00
장소 한미음선원 인양본원 4층 대강당
주최 한미음선원 **주관** 한미음과학원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031) 471-69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황·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특별기획 @생활속의 간화선수행-동명 스님 ▶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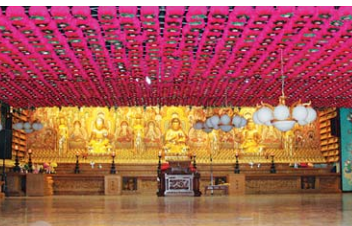
"순환산화 권역 100%"
청다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평형

처사기맛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종사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사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미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촉집등

중등

중등

중등